

# 감성발현하는 곡으로 엮은 전주 시립국악단의 무대

18일 오후 7시30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서 '감성공감' 205회 정기연주회

깊어가는 가을, 헛헛해지는 마음을 우리 소리에 얹어 달래보면 어떨까

전주시립국악단이 오는 18일 오후 7시 30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에서 '감성공감' 205회 정기연주회로 감성이 발현하는 무대를 꾸민다.

박천지 시립국악단 상임지휘자가 이끄는 이번 공연에는 시립국악단과 함께 소리꾼 장사익이 특별한 무대를 만들어준다고 하며, 대금 이민주, 태평소 오남영, 쟁과리 광영중, 장구 박종석, 북 유인환, 징 강은진 등이 출연한다.

공연은 섬세한 선율로 표현되는 '아리랑환상곡'으로 연다. 이 곡은 한민족의 상징인 민요아리랑을 1976년 북한 작곡가 최성환이 재해석했다.

구슬픈 민요아리랑의 느낌을 달리 아름답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도록 리듬

과 템포의 변화를 줘 환상곡풍으로 편곡했다. 2008년 세계적인 지휘자 로린 마젤과 뉴욕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평양 인민문화공전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며 공연한 이후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

이어 모든 생명체와 자연의 마음을 담아 희망을 노래한 관현악 '갈대에게 묻다'를, 슬프고 화려하며 정재향 음식으로 연주되는 대금협주곡 '비류'와 태평소·관현악 연주회 '산체스의 아이들'을 감상할 수 있다.

이 곡은 1970년대 후반 'Feel so Good'이란 곡으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은 척 맨지오의 또 다른 역작이기도 하다.

이는 영화에도 삽입된 동명 타이틀 곡 'Children of Sanchez'를 국악기가 연주하

도록 편곡된 곡이다. 장사익은 대표곡 짚레꽃과 아비지로 특별한 소리관을 선사할 예정이다.

마지막 무대는 사물놀이를 위한 관현악 신모듬 곡으로 장식한다.

이는 사물놀이와 국악관현악을 위한 협주곡으로 오늘날 가장 많이 연주되고 있는 작품 중의 하나이다.

곡은 놀이판을 준비하는 정단으로 시작돼 그 장단이 조금씩 빨라지며 흥겨움을 더해 간다.

사물놀이의 영남 풍물가락과 발달거리가 불려지며 곡의 이름대로 신명과 신바람을 불러일으키며 끝을 맺는다.

관람료는 일반 5,000원, 학생 3,000원이며 <http://www.naruculture.com>에서 예매하면 된다. /정해은 기자



감성공감 정기연주회 포스터



## 인터파크도서 '뮤 레전드'

### 오리지널 아트북 한정판 판매

국내 정상급 일러스트레이터들의 작업을 통해 3000여점의 섬세하고 화려한 아트웍이 담긴 '뮤 레전드(MU LEGEND)' 오리지널 아트북이 나왔다.

인터파크도서(대표 주세훈)가 '뮤 레전드(MU LEGEND)' 출시 기념 오리지널 아트북 'THE ART OF MU LEGEND' 한정판(Special Edition)을 14일 단독 판매한다.

뮤 세계의 기밀부터 캐릭터, 영웅과 적들, 아이템과 지역 등 뮤 레전드를 구성하는 모든 것의 아트웍을 실었다. 한정판 독자를 위해 200컷 이상의 개발 과정 스케치, 아이디어 습작 등 특별 일러스트도 담겼다.

'뮤 레전드'는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는 뮤 시리즈의 장점을 이어받아 새롭게 선보이는 MMORPG 게임이다. 간단한 조작과 심플한 인터페이스를 기본으로 호쾌한 전투 스타일을 선보이며 개성에 따라 깊이 있는 플레이가 가능해 완성도 높은 액션캐주얼 RPG를 즐길 수 있다.

인터파크도서는 "기획과 편집, 디자인, 제작까지 심혈을 기울여 완성한 웹메이드 아트북으로 뮤 시리즈를 사랑하는 팬들에게 특별한 한 권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뉴시스

## "박 대통령, 아이들에게 그릇된 거울"

### 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 시국선언

아동·청소년 연극 관계자들까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박근혜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그동안 사회적 발언에 다소 미온적이던 아동청소년연극 관계자들이 시국에 대해 성명을 발표하는 건 드문 일이다.

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한국본부(아시테지 한국본부)는 14일 '시국선언문'을 통해 "광화문광장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촛불집회를 바라보며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고개를 들 수 없는 참담함을 느낍니다"고 밝혔다.

합을 초등학교 6학년 시험에서 '국가 살림을 위한 돈을 어디에, 어떻게 나눠 쓸지 계획한 것'이라는 질문에 '최순실'이라고 쓴 답을 가리키며 "이것이 시사하듯 대통령께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릇된 거울이 되셨다"고 토로했다.

"세상은 권력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권력이 있는 부모만 있으면 제2의

정유리가 될 수 있다'는 무서운 사례를 남기셨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인과응보"와 '권선징악'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극의 기본인 주제이자 사회질서의 1번이라며 "아동청소년연극을 만드는 저희는 기본조차 지켜지지 못한 작금의 시국사태에 대해 어른으로서 너무나 부끄럽습니다"라고 토로했다.

"더 이상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대통령이 되지 마십시오. 사죄의 말 뒤에는 어떤 말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변명일 뿐입니다"라며 "당장, 하야하십시오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아시테지 한국본부는 아동청소년극단의 교육과 지도에 힘쓰며, 국제교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1982년 설립됐다. 현재 163개의 아동청소년 연극 전문극단, 극작가, 평론가, 기획자, 연구자 등의 회원으로 구성됐다. '2016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여해 박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등 어린이·청소년 사이에서도 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번지고 있다. /뉴시스

## 영화 '가스등' 한옥마을에서 연극으로 만나다

### 아트홀에서 심리스릴러로 공연

주말의 영화에서나 봤을 법한 '가스등'을 한옥마을 아트홀에서 연극으로 만날 수 있다.

가스등은 영국 작가 패트릭 해밀턴의 명작을 1943년 잉그리트 버그만, 찰스 보이어, 조셉 코른 출연의 흑백영화로 제작해 전 세계적인 흥행을 기록했던 작품으로 '가스등 효과(상대방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상대방의 행동을 통제하고 조종하는 현상)'라는 심리학 용어의 탄생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작품은 남편이 하는 말을 믿으며 자기 자신을 의심하는 부인의 모습을 통해 부부, 연인 등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숨겨진 역학관계를 드러내고 있는 심리스릴러로 흥미롭고 치밀한 계략으로 전개된다.

가끔씩 정신을 잃고 자신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 잘 알지 못하는 여주인공은 어머니가 정신병으로 사망한 병력을 물려받았을까 봐 두려움에 떠난다. 이런 아내를 남편은 이해하려 보살피며 주지만 아내의 상태는 더욱 심해져만 간다. 그러던 어느 날, 아무도 반기지 않는 불청객이 찾아와 이 부부의 위태로운 평화를 위협에 처하게 되는데...

한옥마을 아트홀의 대표이자 연출 김영오씨는 "오래된 흑백 화면 속에서도 빛나던 잉그리트 버그만의 연기를 보고 배우로서·연출로서 꼭 해보고 싶은 욕심이 생길 정도로 탄나던 작품이었습니다. 이번 작품에서는 탄탄한 스토리라인과 치밀한 구성을 보다 돋보이게 하는 각색을 통해 연극 본연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했다. /정해은 기자



가스등은 영국 작가 패트릭 해밀턴의 명작을 1943년 잉그리트 버그만, 찰스 보이어, 조셉 코른 출연의 흑백영화로 제작해 전 세계적인 흥행을 기록했던 작품으로 '가스등 효과'라는 심리학 용어의 탄생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특히 이번 작품에서 처음으로 단독 여주인공 역할을 맡게 된 배우 진시라(24)씨는 "역할을 소화하기에 아무리 노력해도 부족함을 느꼈다"면서도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갖고 변화하는 주인공의 캐릭터가 저 자신에게도 많은 것을 느끼게 한다"며 "관객분들께도 깊은 울림을 선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극은 27일까지 월요일을 제외한 평일 7시30분, 토요일 3시, 7시, 일요일 3시에 공연된다. 문의는 063)282-1033. /정해은 기자

## 한국고전번역원, 신입생 모집나서

한국고전번역원 부설 고전번역교육원이 2017학년도 고전번역교육원 연수과정(3년) 본원 50명(전주본원 20명, 밀양본원 10명)과 고전번역연구과정 I, II(각 2년)의 신입생을 모집한다.

연수과정에 지원하려면 4년제 대학 재학 이상 또는 전통방식의 한학교육을 받아 한학자가 추천해야 한다. 시험과목은 '논어집주', '맹자집주'다.

고전번역 연구과정 I 지원지역은 연수과정 졸업자,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번역 경

험 2년 이상이다. 시험과목은 한문번역(사서, 통감·고문진보, 한국문집 등), 논술, 면접이다.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 면제이며 연구장학금과 연구실이 제공된다.

고전번역 연구과정 II 지원지역은 전문과정 I 졸업,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이상, 번역 경험 4년 이상이다. 시험과목은 한문번역(삼경, 역사문헌, 한국문집), 논술, 면접이다. 역시 입학금과 수업료가 전액 면제되며 연구장학금과 연구실이 제공된다. /뉴시스

## 시민과 함께 가을음악회 속으로

### 춘향합창단 정기연주회 시민 100여명 참석

남원시는 지난 11일 오후 7시에 지리산 소극장에서 깊어가는 가을밤 아름다운 하모니가 있는 음악회에 시민 100여명이 참석하여 2016 춘향합창단의 정기연주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시민과 함께하는 가을음악회'라는 주제로 2016년도 정기연주회를 통해 남원시민들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공유하며 따뜻한 이웃사랑을 전달하고자 마련하게 되었다.

춘향합창단은 음악을 사랑하는 남원지역 여성들로 구성된 합창단으로 2001년에 시작하여 2015년까지 꾸준히 2회 정도 운영되고 있다.

올해는 시설위문공연을 시작으로 환우들과 그 가족들에게 노래라는 약기를 연주하면서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으며, 올해 추석에도 시민과 함께하는 추석맞이 한마음 음악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남원시는 이번 정기연주회를 마치고 "춘향합창단이 각종 위문공연과 자선음악회를 통해 따뜻한 메시지와 화려한 화음을 전달하는 음악의 전도사로 남원을 대표하는 대외문화 사절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 정부 3.0 문화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시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정보원(원장 김소연)이 주관하는 '2016 문화데이터 융합 페스티벌'이 15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다.

'제4회 정부3.0 문화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수상팀과 문화데이터 개방 우수기관에 대해 시상하고, 그간의 문화 분야 공공데이터 개방 성과를 보고한다. /뉴시스

## 따라보며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ilab.com/>

<2016년 11월 15일>

<p><b>▷쥐띠</b> 46년생: 하고자 하는 일이 초반에는 힘들지만 후반으로 풀릴 것이다. 60년생: 금전거래는 불리하다. 특히나 빌려주는 입장이라면 더욱 주의. 72년생: 처음에는 서로 호의적이거나 나중에는 다른 마음. 84년생: 여성은 남성으로 인해 힘든일이 발생.</p>	<p><b>▷소띠</b> 49년생: 좋은 소식을 듣게 되는 운. 61년생: 자신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지 말고 직접 행동. 73년생: 하고자 하는 일로 인해 마음상할 일이 생기나 참고 견디라. 85년생: 좀 더 넓게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p>	<p><b>▷호랑이띠</b> 50년생: 원형은 삼가고 자중해야 떨어지는 운이다. 62년생: 다른 사람과 함께 일을 도모하지 마라. 74년생: 정신적으로는 편하지 않으나 결과적으로는 좋다. 86년생: 90%가 이루어져도 나머지 10%에서 변수가 있을 수 있다.</p>	<p><b>▷토끼띠</b> 51년생: 자기의 말만 앞세우지 말고 타인의 말을 끝까지 들어라. 63년생: 운서를 주고 받는 일에는 좋은 운이다. 75년생: 이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할 때. 87년생: 금전적으로는 평이한 운이나 대인관계는 불리하다.</p>
<p><b>▷용띠</b> 52년생: 덕을 쌓으면 좋은 일이 생기는 운이나 배풀어라. 64년생: 원형하는 것이 아니라면 순조로운 하루가 된다. 76년생: 눈앞에 고지가 보이나 전진하면 좋은 결실을 얻는다. 88년생: 인간 관계를 넓힐 수 있는 운이나 적극적으로 표현하라.</p>	<p><b>▷뱀띠</b> 53년생: 아직은 원하는 것을 얻는 때가 아니니 과감하게 접어라. 65년생: 자신이 혼자 판단하면 실패수가 따르니 조언을 구하라. 77년생: 다른 사람이 내 것을 욕심내는 때이다. 89년생: 타인과의 관계에 신경써야 하는 운.</p>	<p><b>▷말띠</b> 54년생: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힘든운이나 매사에 주의하라. 66년생: 재물은 일찍 움직여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78년생: 도와주려는 사람은 있으나 받아들이지를 못한다. 90년생: 사고수가 있으니 주변을 조심하며 원형은 삼가라.</p>	<p><b>▷양띠</b> 55년생: 다른 사람의 일에 나서지 마라. 좋은소리를 듣지 못하는 운. 67년생: 큰 욕심을 부리면 운이 막히니 작은것에 만족하라. 79년생: 뜻이 맞는 사람을 찾기 힘들때이다. 91년생: 다른 사람의 불화가 발생할 수 있는 운이니 주의하라.</p>
<p><b>▷원숭이띠</b> 56년생: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소중히 대하라. 68년생: 처음에는 의견이 일치 하지 않아 고전한다. 80년생: 다른 사람과의 화합에 좋은 날. 소홀했던 사람에게 일부 92년생: 손해본 만큼 회복이 되는 운이다.</p>	<p><b>▷닭띠</b> 57년생: 한번 입에서 나온 말은 꼭 지켜야 하는 운. 69년생: 경거망동 하면 구설이 따르니 진중하게 행동하라. 81년생: 고집은 금물. 객관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운이다. 93년생: 뜻밖의 수확이 있는 운이나 매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라.</p>	<p><b>▷개띠</b> 46년생: 무리한 요구는 인간 관계에도 안좋은 영향을 주니 주의하라. 58년생: 건강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운이다. 원형도 삼가라. 70년생: 기혼자는 부부불화가 예상된다. 82년생: 하고자 하는일에 겸손함이 꼭 필요한 운이다.</p>	<p><b>▷돼지띠</b> 47년생: 금전적인 이익이 따르니 적극적으로 진행하라. 59년생: 앞뒤가 막혀있는 운이니 때를 기다리며 자중해야 할 운이다. 71년생: 비행일은 있으나 성과는 약한 운이니 마음을 비워라. 83년생: 순간적인 판단으로 진행하면 무리수가 따르나.</p>